

2021년 2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월 24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 문의 :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042-481-1644), 김중길 사무관(1646), 윤민지 주무관(4420)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172조 8,547억원

- 벤처투자기업(4,521개사)의 전체 기업가치(172.9조원)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44.8%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다음으로 높은 수준
-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20개사로 '19년(235개사) 대비 85개사 증가, 바이오·의료 업종이 97개사로 가장 많아

기업가치는 최근 유니콘 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 국내 벤처생태계 규모의 성장세와 벤처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그리고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4일(수), 최근 6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개요

이번 기업가치 분석은 '15년부터 '20년까지 최근 6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5,920개사 중 기업가치 파악이 어려운 프로젝트 투자 등을 제외하고, 기업가치 산정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4,52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 기업가치 분석은 '20년 처음 실시, '20년 최근 5년간('15~'19년) 투자를 분석했으며, 시계열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올해도 '15년부터 분석

<분석방법> 최근 6년 중 마지막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①주식 투자의 경우, 1주당 가격(투자액/인수 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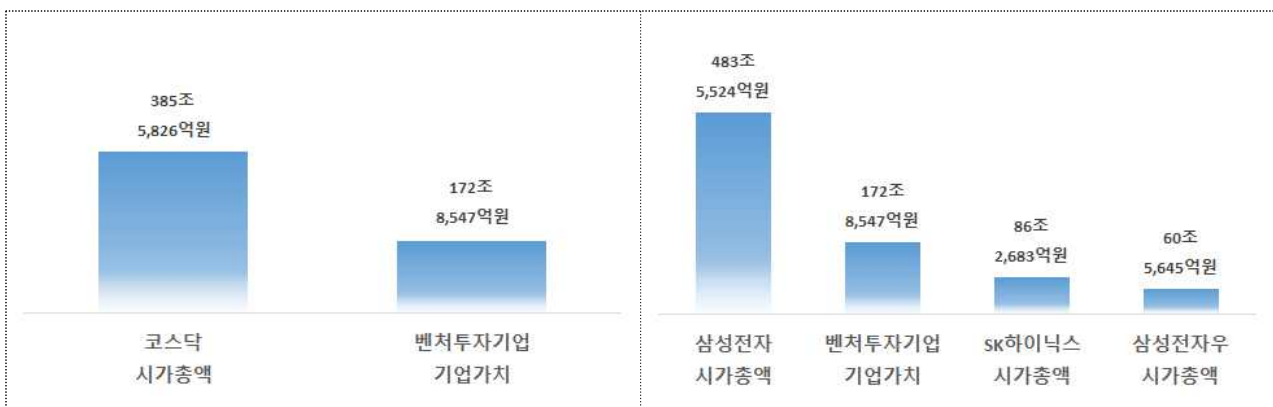
②전환사채 투자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한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분석 결과 및 특징

(1) 전체 : **벤처투자기업 4,521개사의 기업가치 172조 8,547억원**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320개사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4,521개사의 전체 기업가치는 172조 8,547 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385조 5,826억원('20.12.30 기준)의 44.8%에 해당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483조 5,524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시가총액(24조 7,450억원)의 약 7.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업가치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320개 (7.1%),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1,969개(43.5%), 100억원 미만 기업이 2,232개(49.4%)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15년 51개사에서 '20년 320개사로 약 6.3배 증가했다. '20년 새로이 추가된 85개사 중 60개사는 후속투자를 받은 경우이며 나머지 25개사는 첫 투자부터 기업가치를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이다.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1개사	+32	83개사	+32	115개사	+43	158개사	+77	235개사	+85	320개사

투자 당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도 11개사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부는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기준 유니콘 기업은 해외투자를 포함하고, 상장을 하거나 합병 등을 할 경우 유니콘 기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벤처투자를 받아 기업가치 1조원이 되는 경우와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기준 유니콘 기업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유니콘기업 13개사('21.2월 기준) =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현재 등재된 11개사 + 국내 투자업계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2개사

(단위 : 개사, 누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천억원 이상	51	83	115	158	235	320
1조원 이상	2	2	4	6	7	11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4	7	10	15	18	22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7	13	19	22	35	43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38	61	82	115	175	244

'20년에 투자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422억원으로 '19년 361억원 보다 16.9% 증가했고, '20년 벤처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의 배수가 20.8배로 '19년 12.8배보다 6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다는 것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이다.

(단위 : 개사, 억원, 배)

구분	투자기업	총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A)	기업가치 합계	평균 기업가치(B)	배수(B/A)
'15~'20 누계	4,521	148,079	33	1,728,547	382	11.7
2015	693	15,391	22	249,346	360	16.2
2016	846	16,593	20	252,182	298	15.2
2017	860	17,582	20	275,436	320	15.7
2018	1,043	26,964	26	420,362	403	15.6
2019	1,238	34,831	28	446,856	361	12.8
2020	1,811	36,719	20	763,964	422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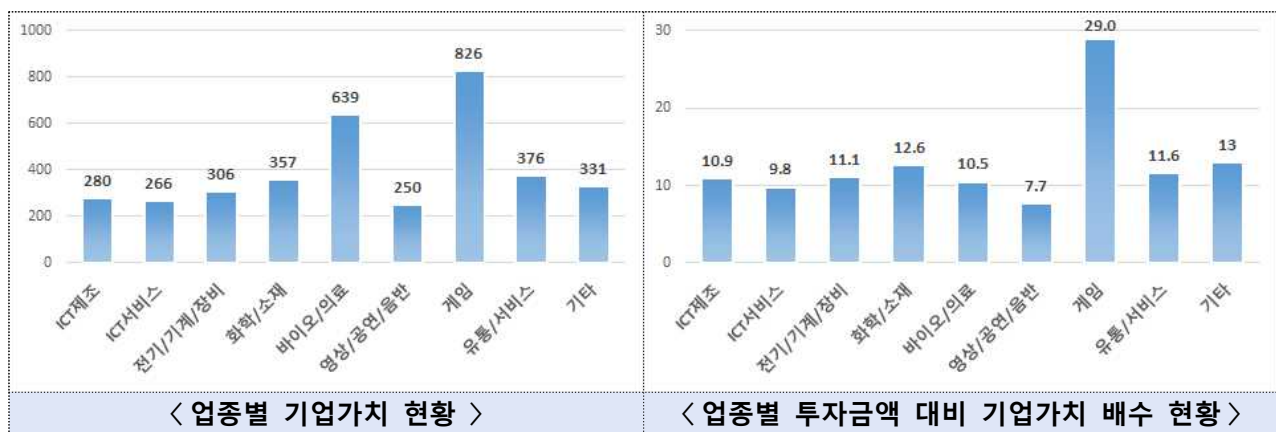
* 마지막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 업종별 :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평균 기업가치가 높고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도 바이오·의료에 가장 많아

업종별 평균 기업가치를 살펴보면 게임이 82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의료 639억원, 유통·서비스 37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게임업종의 경우 (주)크래프톤(기업가치 12.8조원)을 제외하면 평균 기업가치가 330억원으로 낮아지고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12.5배로 낮아진다.

(주)크래프톤을 제외할 경우, 평균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639억원), 유통·서비스(376억원), 화학·소재(35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는 화학·소재(12.6배), 게임(12.5배), 유통·서비스(11.6배)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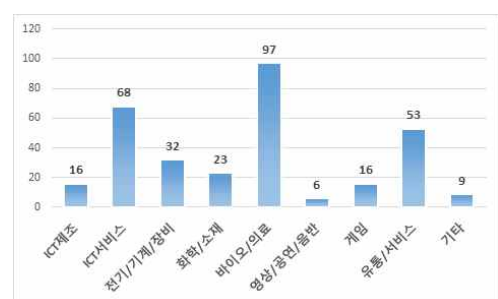


(단위 : 개사, 억원, 배, 6년 누계)

구 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1)	2)		
투자기업(개사)	302	1,381	459	285	615	146	258	257	781	294
평균투자금액(A)	26	27	28	28	61	32	29	26	32	25
평균기업가치(B)	280	266	306	357	639	250	826	330	376	331
배수(B/A)	10.9	9.8	11.1	12.6	10.5	7.7	29.0	12.5	11.6	13.0

* 1) (주)크래프톤 포함시, 2) (주)크래프톤 제외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320개사) 중 바이오·의료 업종이 97개사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68개사, 유통·서비스 5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사, %, 6년 누계)

구 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계
투자기업	16	68	32	23	97	6	16	53	9	320
비중	5.0	21.2	10.0	7.2	30.3	1.9	5.0	16.6	2.8	100

(3) 업력별 : 후기기업의 평균 기업가치 794억원으로 가장 높아

후기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79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18.3배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이는 후기기업일수록 신규투자보다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후속투자를 받는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로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평균적으로 9.2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 : 개사, 억원, 6년 누계)

구 분	초기			중기			후기			계
	~1년	1~3년	소계	3~5년	5~7년	소계	7~14년	14년~	소계	
투자기업(개사)	947	1,535	2,482	721	402	1,123	498	418	916	4,521
평균투자금액(A)	28	28	28	33	37	35	41	46	43	33
평균기업가치(B)	202	253	233	320	476	376	856	721	794	382
배수(B/A)	7.1	9.1	8.3	9.7	12.7	10.8	20.8	15.6	18.3	11.7

(4) 4차산업 분야 : 평균 기업가치 5세대(5G)분야 가장 높고,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블록체인

4차산업 분야를 구분한 '17년 이후 전체를 볼 경우, 4차산업 분야 중 5세대(5G)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74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스마트헬스케어 657억원, 블록체인 5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록체인 분야의 기업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19.9배로 가장 높게 평가됐고, 5세대(5G) 17.6배, 신소재 10.3배 순서였다.

(단위 : 개사, 억원, 4년 누계)

구 분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투자기업(개사)	24	35	20	50	28	39	191
평균투자금액(A)	19	44	51	49	22	55	40
평균기업가치(B)	109	429	292	331	186	365	280
배수(B/A)	5.6	9.7	5.7	6.8	8.5	6.6	7.0
구 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핀테크	지능형로봇	3D프린팅
투자기업(개사)	59	39	127	30	78	31	22
평균투자금액(A)	32	52	40	42	58	25	29
평균기업가치(B)	204	510	360	742	405	177	182
배수(B/A)	6.4	9.8	8.9	17.6	6.9	7.0	6.2
구 분	블록체인	O2O	스마트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AR/VR	신소재	
투자기업(개사)	36	179	452	24	80	79	
평균투자금액(A)	26	70	66	47	25	31	
평균기업가치(B)	520	495	657	350	217	322	
배수(B/A)	19.9	7.1	9.9	7.4	8.8	10.3	

(사례) 블로코(주)(경기 소재) : 706억원 기업가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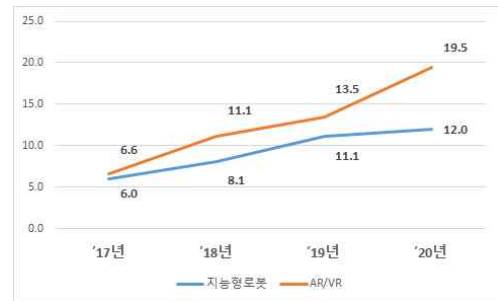
☞ 블록체인 SW 및 미들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년 10월 엘비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2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706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당해연도 투자기업만 분석할 경우 블록체인 분야의 기업이 '20년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76.2배로 높아 그만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이며, 5세대(5G) 38.8배, 신소재 20.9배 순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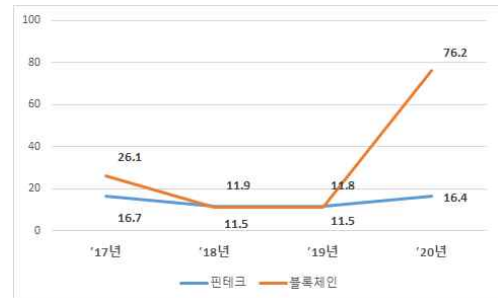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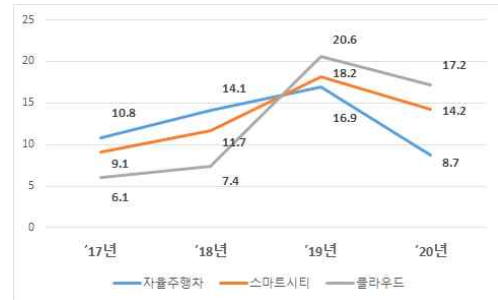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의 연간 추이를 보면 그 배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17년은 블록체인, '18년은 3차원(3D) 프린팅, '19년은 클라우드, '20년은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이 '17년 이후 다시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1위	블록체인(26.1배)	3D프린팅(26.3배)	클라우드(20.6배)	블록체인(76.2배)
2위	지능형반도체(20.4배)	5G(21.9배)	스마트시티(18.2배)	5G(38.8배)
3위	5G(19.6배)	신소재(18.1배)	자율주행차(16.9배)	스마트공장(20.9배)

지능형로봇,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2개 분야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증가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3개 분야는 '17년부터 '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년에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고, 핀테크, 블록체인 2개 분야는 '17년부터 '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년에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매년 증가	지능형로봇	6.0	↑	8.1	↑	11.1	↑	12.0
	AR/VR	6.6	↑	11.1	↑	13.5	↑	19.5
증가 → 감소	자율주행차	10.8	↑	14.1	↑	16.9	↓	8.7
	스마트시티	9.1	↑	11.7	↑	18.2	↓	14.2
	클라우드	6.1	↑	7.4	↑	20.6	↓	17.2
감소 → 증가	핀테크	16.7	↓	11.9	↓	11.8	↑	16.4
	블록체인	26.1	↓	11.5	↓	11.5	↑	76.2

(5) 비대면분야 : 비대면분야가 대면분야보다 미래성장가능성 높게 평가

비대면 분야를 구분한 '17년 이후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655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비즈니스·금융 458억원, 생활·소비 340억원 순서였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16.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비즈니스·금융 12.3배, 교육 9.5배 순으로 분석됐다.

(단위 : 개사, 억원, 배, 4년 누계)

구 분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금융	생활/ 소비	엔터 테인먼트	물류/ 유통	기반기술
투자기업(개사)	143	110	251	433	412	87	440
평균투자금액(A)	35	24	37	37	39	22	28
평균기업가치(B)	323	227	458	340	655	192	236
배수(B/A)	9.1	9.5	12.3	9.2	16.9	8.7	8.5

또한 비대면 분야 기업의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11.5배)가 대면 분야 기업(10.0배)보다 높게 나타나 그만큼 비대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위 : 개사, 억원, 배, 4년 누계)

구 분	투자기업	평균투자금액(A)	평균기업가치(B)	배수(B/A)
전 체	3,689	37	393	10.7
비대면 분야	1,876	34	386	11.5
대면 분야	1,813	40	400	10.0

(사례1) (주)아데나소프트웨어(서울 소재) : 3,544억원 기업가치 평가

☞ 글로벌 외환거래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58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3,544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사례2) (주)버킷플레이스(서울 소재) : 6,445억원 기업가치 평가

☞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업(서비스 : 오늘의집)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미래에셋벤처투자로부터 70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6,445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사례3) (주)뤼이드(서울 소재) : 1,750억원 기업가치 평가

☞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서비스 : 산타토익)를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99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1,75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19.12월 예비유니콘 선정

(6) 지역별 : 경기소재기업 평균 기업가치 483억원으로 가장 높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서울소재 162개사

경기소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48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소재 기업 480억원, 충북소재 기업 4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사, 억원, 6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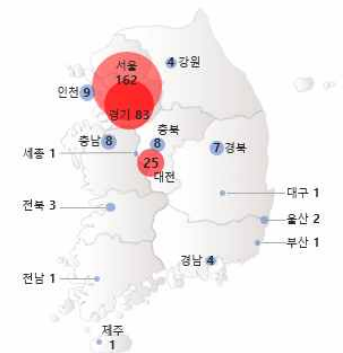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투자기업(개사)	2,299	1,056	109	117	92	251	47	13	61
평균투자금액(A)	35	32	32	21	17	42	22	30	15

평균기업가치(B)	372	483	381	172	136	447	136	173	188
배수(B/A)	10.7	15.0	11.7	8.1	8.2	10.5	6.1	5.7	12.2
구 분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투자기업(개사)	31	64	83	108	75	26	59	30	
평균투자금액(A)	28	33	26	23	24	33	34	38	
평균기업가치(B)	186	469	398	211	236	480	339	458	
배수(B/A)	6.7	14.1	15.6	9.1	9.8	14.7	9.9	12.0	

울산과 충북소재 기업이 평균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높아 수도권과 큰 차이없이 우수하며 이는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 지역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922억원), 화학·소재(839억원) 업종의 기업이, 울산 지역은 전기·기계·장비(2,215억원), 바이오·의료(362억원) 업종의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한다고 파악됐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320개사) 중 서울(162개사), 경기(83개사)를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많이 소재한 지역은 대전(25개사)이다.



(단위 : 개사)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투자기업	162	83	9	1	1	25	-	1	3
구 분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투자기업	1	8	8	7	4	2	4	1	

(사례1) (주)엔캠(충북 소재) : 3,080억원 기업가치 평가

☞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로부터 10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3,08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사례2) (주)글루가(충남 소재) : 1,954억원 기업가치 평가

☞ 화장품 제조업(브랜드 : 오호라)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서울투자파트너스로부터 60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1,954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사례3) (주)ㅇㅇㅇ(울산 소재) : 1,275억원 기업가치 평가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으며, '20년 벤처캐피탈로부터 19.9억원 투자를 유치하여 1,275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

(7) 2020년 벤처투자기업의 직전 투자대비 기업가치 변동

'15년~'19년에 투자를 받고 '20년에도 후속투자를 받은 기업은 671개사였으며 이중 88.1%(591개사)가 직전투자 당시보다 기업가치를 평균 599억원 높게 평가받았다.

직전 투자당시 기업가치 대비		투자기업	기업가치 평균증감액
	'20년 기업가치가 증가한 기업	591개사 (88.1%)	599억원 증가 (384 → 983)
	'20년 기업가치가 감소한 기업	70개사 (10.4%)	235억원 감소 (662 → 427)
	변동없음	10개사 (1.5%)	

특히 '19년~'20년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 97개사(아기 40개, 예비 57개) 중 60개사가 후속투자를 받았으며 이 중 56개사(93.3%)가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직전 투자당시 기업가치 대비			
	계	증가(평균증감액)	감소(평균증감액)	투자없음
아기유니콘	40개사	25개사(+266억원)	-	15개사
예비유니콘	57개사	31개사(+1,173억원)	4개사(-278억원)	22개사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업 벤처생태계는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역대 최초 벤처펀드 6조원 결성, 벤처투자 실적(4.3조원)지속적인 증가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가 모여 제2벤처붐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올해 중기부는 창업붐과 투자붐, 수출붐을 일으켜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기업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 관리과 김중길 사무관(☎ 042-481-16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